울산 정토마을, 간월사 적멸보궁 봉불 점안

4월16일 정토마을 공경전서 개최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토사 관자재회는 4월 16일 울주 정토마을 간월사 공경전에서 적멸보궁 부처님 점안법회 및 진신사리 이운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증명법사로 단양 방곡사 묘허 스님이 나섰으며, 정토마을 원장 능행 스님, 북대암 회주 법춘 스님, 광성사 소남 스님, 통영 연화사 도법 스님, 해인사 무애 스님, 세심사 승인 스님, 오봉사 혜원 스님, 법왕사 혜경 스님, 티베트 발덴 스님, 상뽀 스님 등 스님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서범수 국회의원, 이선호 울주군수, 장익 前 위덕대 총장, 서창원 불모, 김개천 건축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점안의식, 타종, 개회, 삼귀의, 내빈소개, 축사 2부 헌공의식, 육법공양, 청법가(세존사 대불합창단), 법문(묘허 스님), 피아노연주(오상문 피아니스트), 찬불가, 공지사항 3부 이운의식, 피아노연주, 육법공양, 헌공의식,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 정토사 관자재회는 4월 16일 적멸보궁 봉불식을 개최했다.

이날 능행 스님은 "출가 후 의료와 교육 불사 활동 하다 오늘에야 처음으로 법당 불사를 하여 오늘 정토마을 간월사 공경전에 부처님을 모시게 됐다"며 "법당을 구비하기 위해서 아미타불과 신중탱화를 점안하지만 차후 불사가 더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이어 "여법하고 장엄하게 불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신심이 나고, 번뇌가 끊어지는 감로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다. 현대와 전통의 감각을 잘 맞춰 편안히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경전은 기도대법당으로 선망부모를 생각하며 지장보살을 조성하는 보은전, 적멸보궁, 삼천불 및 만년위패가 모셔지는 상락아정에 지장보살 대불이 조성될 예정이다. 최상층 적멸보궁에는 부처님의 전골 진신사리가 사리탑이 준비되는 대로 봉안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큰 뜻을 가지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주한 능행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정토마을이 앞으로 계속될 불사를 부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마음으로 원만성취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축사로 "3년 전 경사지인 이곳이 공경전으로 변화된 모습은 불자들의 정성이 있어 가능했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이 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성철 스님 탄생지 겁외사에 통일비 건립

1989년 3월 내린 법어 '통일을 바라며' 새겨

"화합, 평화, 통일 기대돼" 겁외사 성역화사업 마무리

성철 스님 탄생성지 산청 겁외사에 모든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담은 통일기원비가 건립됐다. 성철 스님 문도회와 겁외사(회주 원택)는 4월 21일 겁외사 앞 사면불을 모신 광장에 성철 스님의 '통일을 바라며'를 새긴 법어비를 세웠다. 비는 기단 포함 높이 3m, 넓이 2m 80cm의 크기로 이재근 산청군수가 보시한 것이다.

이번에 새겨진 '통일을 바라며'는 성철 스님이 1989년 3월 1일 종교인연합회에 내린 법어(法語)로 간절한 통일의 마음을 담았다. 성철 스님 특유의 간결하고 정확한 한글 법어가 눈에 들어온다.

성철 스님은 '통일을 바라며'에서 "만방의 자랑이며 구주(九州)의 영광인 배달의 성자신손(聖子神孫)이 천하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낙토(樂土)에서 대대로 융성하여 천만 년을 살아오며 한 핏줄의 따슨 정을 오손도손 나누었거늘, 오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섬을 조상들이 아실까봐 두렵고도 두렵구나"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스님은 또 "감로수로 빚은 술을 오색 잔에 가득 부어 서로서로 권할 적에 흥겨워 노래하며 저절로 춤을 추니 도원의 옛 동산도 무색하기 짝이 없네. 한라산에 솟은 달이 천지 못에 비치우니 어허라! 좋을시고 삼천리 한땅이요 칠천만이 한형제이니 한려수도 돌아보고 만물상을 구경가세"라며 평화와 통일을 강조했다.


산청 겁외사에 세워진 통일기원비. 겁외사 성역화 불사 마지막 단계 사업이다.

겁외사 측은 이번 통일기원비 건립으로 겁외사 성역화 불사는 사실상 마무리되었음을 전했다. 겁외사는 "2001년 겁외사 불사 회향, 2014년 성철스님기념관 조성, 2021년 사면불 낙성에 이어 이번 기원비 제막으로 겁외사는 명실상부한 성철 스님 탄생성지로서의 사격(寺格)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겁외사 성역화 불사에 진력해 온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신라의 삼국통일 기운을 염원하며 지난해 사면불을 조성했고 또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전쟁 없는 불국정토를 꿈꿨던 성철 큰스님의 원력을 이어 받아 불사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많은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로 내년 성철 큰스님 열반 30주기 전에 불사를 마무리하게 된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택 스님은 또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 평화롭게 통일된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경남지역 봉축점등식 이어져

고성사암연합회 · 통영사암연합회 등 개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지역 곳곳에서 봉축점등식이 진행됐다. 고성사암연합회(회장 수운)는 4월 16일 고성군 송학동고분군에서 봉축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오른쪽>

이날 점등법회에는 고성사암연합회 회장 수운 스님(약수암), 관음사 동명스님, 적멸보궁 지성 스님, 문수암 법광스님, 옥천사 종성 스님, 통영사암연합회회장 종묵 스님, 도법 스님, 자용 스님, 운흥사 선현 스님, 장의사 현재 스님, 청수암 진각 스님, 무위사 명조 스님, 서방사 등정 스님 외 지역스님들과 백두현 고성군수, 박용삼 고성군의회의장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여했다.

고성사암연합회장 수운 스님은 봉축사로 "부처님께서는 차별 없는 사랑, 무차별의 사랑을 대자대비심이라 표현했다. 한 지도자의 잘못으로 영문도 모르고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대 대자대비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운 스님은 이어 "부처님의 광명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빨리 오길 바란다. 오늘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해 만든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에 불을 밝힘으로써 희망의 등불이 되어 자비의 발걸음이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서원했다.

통영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묵)도 4월 17일 항남동오거리 잔디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영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용화사 종묵 스님, 보현사 묵원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대성암 승원 스님, 두타사 자용 스님, 보광사 연산 스님, 용화사 팀플스테이 스님, 김갑조 통영신도단체연합회, 조용정 통영거사림회 회장, 유대암 보현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연합회 회장 종묵 스님은 봉축사에서 "경전에 담마기금이란 말은 삶을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아까워서 금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것"이라며 "지혜와 자비실천을 통해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욕망과 분노의 습관을 버리고 이웃과 모두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주 화엄불교대학은 4월 21일 제34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전주 화엄불교대학 제34기 입학식

신입생 31명 입학, 일원 스님 "불교공부가 행복"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가 운영하는 전주 대표 교육기관인 화엄불교대학이 4월 21일 입학식을 진행했다. 전북불교회관 큰법당에서 열린 이날 입학식에는 학장 일원 스님(금산사 주지), 제환 스님, 효진 스님, 우림 스님, 공해 스님, 여찬 스님, 하유호 108산사 순례단장,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과 신입생들이 참석했다.

일원 스님은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진다"며 "불교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여러 신행활동을 통해서 졸업할 때쯤이면 정신적 완성도와 잠재적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선 17교구 신도회장은 하유호 108산사 순례단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화엄불교대학은 지역의 전법과 포교, 교육을 도맡아온 근본도량"이라며 "화엄불교대학이 시대에 앞서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동문회장은 축사에서 "화엄불교대학서 열심히 정진해 부처님의 미소를 언제나 가슴에 담고 살자. 이웃과 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불자로서 화엄불교대학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화엄불교대학은 1년 과정동안 학장 일원 스님, 전북불교회관 총무국장 우림 스님, 흥복사 주지 공해 스님, 특강 묘주 스님, 여찬 스님, 남궁선 박사, 김정희 원광대 교수, 조주현 교수, 소현숙 교수, 이미종 교수, 이영배 학생처장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관사 불교문화유산 연구 본격화

천관사 · 국립나주문화재硏 4월 19일 업무협약

신라시대 조성된 화엄종 고찰인 전남 장흥 천관사의 문화유산 관련 연구가 본격화된다.

장흥 천관사(주지 지행)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은석),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사장 한성욱)은 4월 19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회의실에서 천관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 연구,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천관사와 두 기관은 천관산 소재 문화유산 학술조사 · 연구를 비롯해 △국내 · 외 학술대회 개최 △국내 · 외 답사 주관 △온 · 오프라인 홍보와 정보 제공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천관사와 이들 기관은 학술대회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고 천관사 가람 배치와 천관보살 신앙과의 관계도 규명해볼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문화재 대내 · 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과 민간과의 협력 사례"라며 "지역에 소재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가치 발굴, 보존 ·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창녕 약수암, 낙성 점안법회 봉행

창녕 약수암(주지 왕산)은 4월 17일 대웅전에서 약수암 불사완공 낙성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약수암 주지 왕산 스님,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자윤 스님(법성선원), 총무원장 청암 스님(요산정사), 종회의장 태일 스님, 호법원장 현응 스님(밀양 구룡암) 등 종단스님과 채경숙 신도회장 외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복장불사와 점안식 및 삼귀의, 반야심경, 헌다, 헌공, 인사말, 사홍서원, 회향식으로 진행됐다.

종정 자윤 스님은 "자비와 청빈한 삶을 수행실천 덕목으로 생활하자. 부처님 가르침이 사부대중의 마음에 스며들어, 맑고 밝은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일원 스님 · 경우 스님 전북도지사 표창

코로나19 확산 방지 공로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과 24교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앞장선 공로로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일원 스님과 경우 스님은 4월 2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모범업소 및 기관 시상식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확진자 감소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금산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법회를 중단하고 부처님 오신날 행사 등을 비대면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제공했다.

선운사는 교구 65개 사찰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선운문화재 등 각종행사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하였으며, 코로나 극복 성금으로 20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송하진 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도민들의 건강과 지역 상권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 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긴장을 유지하면서 마스크 쓰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천 천룡정사 약사여래불 점안법회 개최

영천 천룡정사(주지 지덕)는 4월 17일 경내 대웅전에서 칠보삼존불 및 약사여래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을 법주로 삼보실천승려회 대덕 스님과 무형문화재 단공 스님, 의식집 불사에 동참한 손혜정 등이 참석했다.

법주 혜각 스님은 "자신의 어리석음, 욕망을 영원한 복밭인 부처님 전에 모두 내려놓고 수행정진하자. 보리심을 내어 이웃과 사회, 국가에 큰일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룡정사 주지 지덕 스님은 "4월 17



일 지장천도 영험기도도량에서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그 다음날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이는 약사여래불의 가피"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